불모지 대학서 결집된 청년불자 전법의 희망 보여주다

RE:START 대학생 전법

4.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첫 결실–영산대 불교학생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 중흥과 미래 불교의 희망을 위해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첫 결실로 탄생한 영산대학교 불교동아리. 창립 당시 등록한 회원이 64명이었다. 2023년 9월 4일 개강 이후 9월 16일까지 단 12일 만에 이룬 성과다. 늦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캠퍼스 건물을 다니며 전법활동을 펼친 지도법사 덕현 스님의 얼굴은 빨갛게 익었지만 마음은 설렘과 환희심으로 가득했다.

밀짚모자 쓰고 캠퍼스로 간 비구니스님

영산대학교 캠퍼스에 음료수 가판대가 설치됐다. 동아리 회원 모집 현수막 아래 전단지도 가득 쌓였다. 제품 영업 현장 같은 이곳에 밀집모자를 쓴 비구니스님 한 분이 서 있었다. 2023년 9월 6일 가을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셔틀버스에서 내리며 마주한 풍경이다.

영산대에 전법 가판대를 차린 것은 통도사 포교당 웅장원 주지 덕현 스님이었다. 덕현 스님은 지난해 7월 6일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으로 위촉됐다.

덕현 스님은 막상 대학 포교를 시작하려니 막막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수소문하며 만나는 이에게 묻고 다니기 시작했다.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통도사 불교대학 불자에게 방법을 묻자 그들은 류진원 웅상출장소 전 소장을 소개했다. 류진원 소장의 도움으로 스님은 영산대 불자 교수인 이동성 교수와 만날 수 있었고, 이 교수는 불교동아리 창립을 반색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부터 대학교 내 전법 활동 절차를 등록하는 것까지 이동성 교수가 나서 해결했다.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자 스님은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교수님이 주신 정보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만나기 좋은 강의동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학교 학생의 특성 및 연령대 등을 알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을 계획할 수 있었죠."

덕현 스님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선정해 홍보 부스를 설치했고 캠퍼스 내 현수막을 걸기 좋은 장소를 물색했다. 음료수에 홍보 스티커를 붙여 학생들에게 나눠주었고 전단지를 건넸다.

하지만 개강일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은 스님을 본체만체였고 눈빛은 싸늘했다. 스님의 마음도 불안과 걱정으로 쌓여갔다.

"셔틀버스에서 내려 걸어오는 아이들에게 홍보지를 건네자 눈빛이 대부분 차가웠어요. 전단지는 안 가져가고 음료수도 받지 않으려 했죠. 호응 없는 모습에 기운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상했어요. 첫날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금방 지나가서 마음도 다급해졌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죠."

스님은 다시 정비하듯 마음을 추스렸다. 이내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시작했고 향과 음악 장비를 챙겨 다음 날 학교로 출발했다.

"가판대를 하나 더 늘리고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 향을 곳곳에 피워 향기를 기억하도록 하고 음악으로 주의를 끌었죠. 오감으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썼고 공부할 때 음료수 마시면서 하라고 말을 걸기도 했죠."

제1기 불교동아리 64명 회원 모여

현수막 · 전단지 직접 들고 캠퍼스로

지역내 사찰의 관심과 후원 이어져

대학생 눈높이 맞춘 명상법회 인기

학생들은 망설이긴 했지만 음료수와 전단지를 가져가기도 하고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문의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불교동아리는 무엇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더군요.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스님은 여느 날처럼 학교를 돌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취업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학생들이 부처님을 법을 알고 삶의 의미를 찾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그때 스님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이 나타났다. 스님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보험 세일즈처럼 학생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했다.

"20명을 모아 반드시 동아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렸어요. 학생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학생들이 가입을 안 해도 괜찮다며 이곳에 불교동아리 창립을 하려는 움직임 정도만 전달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바꾸었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학생들의 행복만 기원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한 시간 만에 24명의 아이들이 찾아왔고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홍보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이후 창립 법회를 열기까지 64명의 학생들이 불교동아리 회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교동아리 탄생…명상으로 마음 수행

지도법사 덕현 스님과 이동성 지도교수 그리고 불자들의 노력이 모여 영산대 불교동아리가 정식으로 창립됐다. 통도사는 2023년 10월 7일 경내 문수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정식으로 출범을 알렸다.

창립법회 현장에서 통도사는 불교동아리 발전기금 500만원을,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300만원을 후원했다.

창립 이후 학생들을 위한 법회를 꾸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영산대불교동아리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정기법회를 시작했다. 첫 법회를 봉행한 후 스님은 바로 학생들에게 맞는 법회를 고심했다.

"세대에 어울리는 법회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법회 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고리타분해 했습니다. 새로운 법회 방법을 고민하다가 동국대에서 배운 명상을 적용했고 반응은 아주 좋았죠."

학생들은 명상을 하면서 생각이 사라지는 편안함을 경험했고 그 시간을 행복해했다.

김은선(2학년) 학생은 "향기명상 시간이 정말 좋았다"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을 비워 홀가분해지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명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안준영(2학년) 학생도 "평소 명상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마음의 안정이 어떤 것인지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이해인(2학년) 학생과 심유빈(2학년) 학생도 "명상을 통해 생각을 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영산대 불교동아리 창립은 심각한 침체로 어두웠던 한국불교에 희망을 보여줬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캠퍼스로 직접 찾아간 덕현 스님의 용기가 필요하다.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불교를 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인내도 필수조건이다.

덕현 스님에게 앞으로의 전법 방향을 물었다. 스님은 "방학이 끝나면 2기를 모집해야죠"라고 했다. 지속적인 전법, 이것만이 불교 중흥의 열쇠다.



영산대 불교학생회가 2023년 10월 7일 통도사 문수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학생들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염원하고 있다.


정기법회가 끝나고 기념촬영.



창립법회에서 통도사는 영산대 불교학생회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불광사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총무원장 덕륜 석법경 화남

종도일동합장

종도모집중 | 가입문의 010-5024-5249 총무원장 스님

총본산: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